

‘문학의 해’를 나의 해로

불자작가 창작 열기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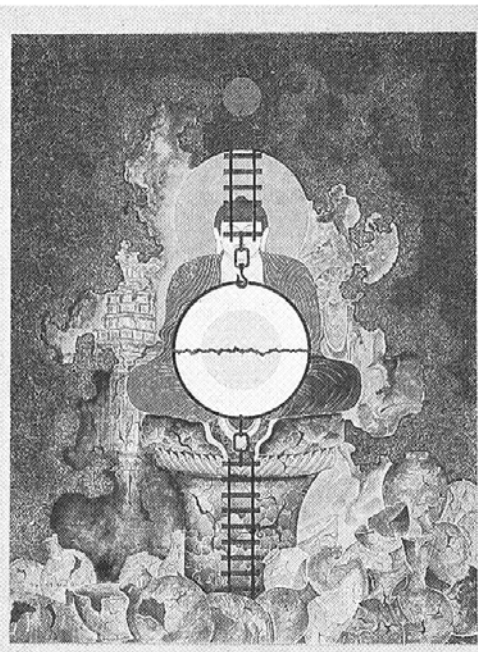
“문학의 즐거움을 국민과 함께”
 “문학의 해” 공식 표어다. 문학의 즐거움을 독자들에게 심고 가꾸어 함께 나누려는 ‘문학의 해’ 주인공들인 작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첨단미디어 영상물에서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고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문학’으로 되돌리기 위해 작가, 특히 불자작가들이 올해 아심작들을 잇따라 펴낼 것으로 알려져 ‘문학의 해’를 일구는 불조성에 한 몫을 푼다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0권의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알려진 고은 시인, 시집 <만인보> 3권과 소설 <선(禪)>을 추가로 더 낼 예정이며 소설 2권, 평론집과 산문집 등을 잇따라 펴낼 계획으로 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장편을 오래전부터 구상하고 자료를 모은 남지심씨는 3권으로 마무리 될 <담무갈(가계)>을 3부의 1

쯤 쓰고 있다.
 일연스님의 출가때부터 63세 대장경 완성 회향법회까지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동고난을 배경으로 엮어지게 된다.
 고은 산문집 평론집 등 10권 예정
 남지심 ‘일연스님’ 주인공 장편 집필중
 백금남 등 만드는 사람 삶 소설로
 이외수 자전소설 ‘나’ 구상...개인전도
 김성동 바둑소설 ‘국수’ 1부 마무리
 한승원 ‘아제아제 바라아제’ 보완
 우봉규 염전지대 무대 장편동화 준비
 정찬주 ‘정도전’ 관련 역사소설 구상

제로 한 2천5백매 가량의 장편을 여름쯤 출간계획으로 집필 중에 있다.
 기인작가로 알려진 이외수씨는 10대 20대 60대의 등장인물 해 개인전과 더불어 화집도 출간할 계획.
 바둑을 소재로 한 <국수(國手)>를 4년 바 있는 김성동씨는 올해 2권을 더 써 1부 6권을 마무리한다.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승원씨도 대표작중 하나인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보완해 오는 11월경 5권으로 완간한다.
 우봉규씨는 오는 3월 4번째 소설을 낸다. 빈 절(寺)을 무대로 한 <푸르고 푸른 그대>라는 진솔한 사랑이야기. 우씨는 또한 2월에는 염전지대를 무대로 한 장편동화 <물새아 물새아>도 내용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월혈>을 낸 바 있는 정찬주씨는 월간 ‘불교’지에 연재했던 소설 ‘관세음보살’을 책으로 묶어 내며 현재 조선초 개국공신 <정도전>을 주인공으로 한 역사소설 <영명의 땅(가계)>을 구상하고 있다.

백금남씨는 오는 초파일쯤 등(燈) 만드는 사람 이야기를 주제로 한 불교 장편소설을 선보인다. 그는 또한 ‘환생’을 주제로 내세워 세대적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전적 소설 <나(가계)>를 준비중이다.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는 이외수씨는 올

이경숙 기자



고속철도 경주통과반대 지상전

서보룡 작 공심(空心)

방송가 소식

대구BBS 주파수 94.5MHz
 청주BBS 주파수 96.7MHz

불교방송 대구 경북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완공되는 대구 진각회관(대구시 중구 대봉동 156-1) 8층 1백81평을 불교대구방송의 연주소(사무실)로 임대 사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불교 대구방송은 1월 말경 주파수 94.5MHz의 사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며 출력 3kw로 대구 일원 경북 일부지역을 가청 지역으로 흡수케 된다. 이에 따라 불교대구방송 추진위는 팔공산 공군 유류 송신탑을 불교 방송, 대구 평화방송, 한국이동통신 등 3사가 공동으로 개보수해 사용키로 결의했으며, 오는 1월말 1차 시설기기발주와 함께 신인 및 경력사원공채도 서울, 부산, 청주등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교대구방송 추진위는 방송국 설립 추진성금이 15일현재 4억9천3백7십8만원이며 진각회에서도 동참을 결의 2억원을 출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불교방송도 주파수 FM 96.7MHz로 오는 말경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아 전파를 띄우게 된다.

“안방부처님 모시기 동참을” 불교TV ‘2천만불자 원력 하나로’ 특집 방송

불교TV는 제3차 불자수익공모화산을 위한 특집 좌담 “2천만 불자, 원력을 하나로!”를 지난 19일 방송했다.
 “2천만불자, 원력을 하나로!”는 이정부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조계종 포교원장 성태스님, 현대불교신문 회장 권정국, 그리고 불교TV 이호 경영관리국장이 참석, 불자수익공모를 통한 ‘안방부처님 모시기’에 전 불자의 신심어린 동참을 강조했다.
 이날 프로그램에서 포교원장 성태스님은 “월하종정스님과 후무원장 월주스님도 이미 불교TV의 주주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종단을 비롯 스님들과 재가불자가 한마음으로 불교TV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불교TV 포교와 전법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해 결해야 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시청자확보 등의 문제도 성공적인 주시공모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좌담자들은 입을 모았다. 불교TV 제3차 불자수익공모는 불자들의 관심 속에 오는 2월말까지 계속된다.

btn BBS 성도절 특집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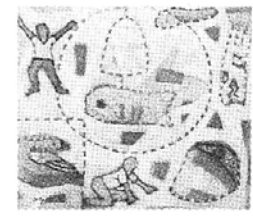
불교TV와 불교방송은 오는 27일 성도절을 맞아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했다.
 btn ▲특별법회 (27일 오전 10시10분)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 할 수 있는 방법과 참다운 불자의 길을 걷는법에 대해 월운스님이 특별법문을 설한다.
 ▲특집좌담 ‘깨달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7일 오전 11시10분) 유명인사와 함께 성도절의 의미와 출가에서 일반에 들기까지의 부처님의 발자취를 통해 의미를 모색한다.
 ▲특집 다큐멘터리 (27일 낮 12시15분) 티벳인들이 성지순례를 통해 얻는 인생의 행복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준다.
 BBS ▲특집좌담 ‘깨달음의 사회적 의미를 위하여’ (27일 오후 5시10분) 깨달음의 사회적 의미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지를 가늠해 보는 시간.
 ▲특별법문 ‘깨달음의 의미’ (28일 10시15분) 성도절을 맞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콘스님 법문시간.

부산BBS 1주년특집 준비 ‘분주’

불교부산방송은 오는 2월1일 오전 8시 30분 개국 1주년 특집 북극도의 아침을 필두로 ‘깨침의 소리, 널리 퍼지소서’ (오전 9시15분)를 마친, 불교 부산방송 개국 1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개국 한돌을 돌아보며 불교 포교에 있어서의 방송의 역할을 진단하는 ‘불교부산방송 1년을 돌아보며’ (오후 2시 10분)와 국민 교수(동아대)가 진행하는 ‘반야의 샘’ (오후 4시 10분)이 출연자들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교부산방송은 개국축하 1주년 기념법회를 당일 오후 5시30분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홀서 서암스님, 불교부산방송 우관수 사장등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할 계획이다.

국립창극단 ‘구운몽’ 26일까지 공연

국립창극단(단장 전황)이 ‘구운몽’을 공연한다. 김인중이 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한 이번 창극은 24일~26일 매일 오후 7시에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막이 올러진다.
 이번 무대에서 안숙선이 8선 너중 제1선너로 분해 극 전부를 설명하며 주도하는 도창역



◇ ‘輪-지금 우리는...’

김영선씨 첫 개인전 모시베의 조형미 연출

모시베와 바느질에 의한 점선으로 새로운 조형적 모색을 시도

도한 김영선씨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공평아트센터 1층 전시실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36점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輪-지금 우리는...’.
 김영선씨는 이번 작품전에서 화면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중심으로 인물 학 거북이 오리 소 등 동물들의 형상을 약화 형태로 자유롭게 배치해 세상만물의 공존 원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또 여러 형상과 함께 등장하는 목어(木魚)는 그 형태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불교의 자기성찰의 상징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문봉선씨 ‘설악산展’ 2월3일까지 학교재 화랑

전통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을 추구해온 한국화가 문봉선씨(인천대 미술학과 조교수)의 ‘설악산展’이 2월3일까지 관촌동 학교재 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93년 ‘북한산’ 연작전

15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역사 바로세우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영삼대통령과 신한국당, 정계은퇴를 반복하고 다시 정치전면에 나선 김대중씨, 신보수세력의 결집을 표방한 김종필씨 그리고 3김 정산을 이슈로 내걸고 있는 민주당 등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공천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서서히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각 정당이 귀기울여 들어야 할 얘기는 ‘정당불교신도회는 다는 목적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각 정당불교신도회는 한마디로 유명무실하다.

동방불교대 ‘만봉불화연구소’ 설립

태고종 동방불교대학에 ‘만봉불화연구소(가칭)’가 설립된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명화) 만봉스님(봉인사)의 전통 고유기법 및 정신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전통미와 현대적 접목을 시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봉불화연구소는 동방대 불화와 4년 졸업자에게 이수증도 준다.
 이와관련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불화와 최성규교수는 “이달내로 세부시행규칙을 마무리하고 3월1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룡사 10년불사 사진전
 구룡사 10년불사회화 사진전이 이달 28일까지 구룡사 1층 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정당불교회는 선거용인가

다. 정당에 문의하면 오히려 그런 모음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는 지경이다. 지난해 10월 창립한 자민련 불교신도회만이 매월 정기법회를 병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콩 으로 만든 우리/된/장이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콩

우리 콩 우리 된장 가공공장에서는 우리 콩 살리기 운동 본부와 농민과의 계약체제를 통하여 우리 콩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수입 콩이 끼어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은 경북 청송에서 우리 콩으로 재래식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와 우리 콩을 살리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함께 하는 우리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식탁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배달 가능(지방 택배료 별도)

우리콩 살리기 운동본부 지정

우리 메주 서울 총판 ☎ 553-0089, 558-0049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90-36

소비가 가격 1말(斗) 4개 값 32,000원

춘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력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할 보석 옥산가 배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100명중 90%는 심장질환과 92%는 위장질환 91.3%는 어지러움증 91.3%는 두통 81.6%는 고혈압 77.8%는 관절염 66.7%의 놀라운 치료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병원병원 임상실험 결과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장애, 안질환 대상으로 중환연속치료를 적용 시켜 임상실험 결과 90.2%는 졸음, 88.9%는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1993. 2. 17)

「春川産 白玉正印」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링양 벽화점 지하상가 입구) 眞玉家 777-0105 眞玉空 介紹

見利思義見危授命
 이로운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우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옥중 안의사의 간수였던 일본 헌병이 존경과 참회로 바라본 인간 안중근. 약사암의 -하스님이 번역하여 국내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내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내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을 즉 죽는 것이 영광이 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重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려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25-0803, 藥師庵 一如